

해를 좋아하는 사람들

(西歐 酪農視察記)

김복용

(매일유업(주) 사장)

지난 6월 中旬 파리에서 개최된 乳加工機械 展示會에 맞추어 유럽을 訪問하여 展示會를 參觀한 후 유럽의 십여개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그곳의 酪農과 乳加工分野의 이모저모를 돌아 볼 기회가 있었다.

짧은 期間에 여러나라를 다니느라고 한곳에서 고작 이틀이나 사흘씩 머물렀기 때문에 각 나라에 대한 特性을 맛보기는 어려웠고 또 회사일 관계로 바쁜 日程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에 自由롭게 觀光여행을 다닐 만큼 이야기거리는 많지 않았다. 이곳 저곳에서 느꼈던 유럽사람들과 유럽의 酪農業에 대하여 단편적인 생각들을 여기에 정리해 본다.

유럽은 세계적으로도 酪農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다. 물론 호주나 북미주에도 酪農이 아주 發達하여 있지만 그 곳 住民이 유럽에서 이주하여 간 것과 마찬가지로 酪農의 原產地를 이야기한다면 역시 유럽이라고 하겠다. 酪農의 歷史를 우리와 비교한다면 우리의 것은 不過 20여년 남짓하지만 유럽은 수세기전부터 牛乳를 主食으로 여기고 개발하여 왔다. 여행중 그 곳의 牧場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과 乳加工 技術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 짜여진 全體의인 시스템과 기술은 참으로 부러운 것이 많

았다. 한편으로는 왜 酪農業이 東洋에 비하여 西洋에서 이처럼 發展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食生活 習慣도 있겠고 流牧民을 元祖로한 歷史의 배경도 있겠으나 우선 피부로 느끼는 그들의 氣候條件이 가장 큰 要因이라고 생각되었다. 유럽의 氣候의 특징은 위도상으로는 북쪽에 있으나, 멕시코 난류의 영향을 받아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은 비교적 덥지 않다. 강우량이 年中 고르게 퍼져 있어 草地 농업에 最適한 環境을 이루고 있다.

사철 풀이 자란다고 하니 우리의 몬순기후와는 酪農환경이 아주 대조적이다.

夏枯期和 越冬期를 합하여 年中 無草日이 200여일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젖소를 키우는 농가에게는 가혹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自然환경을 극복하면서 山地를 개간하고 成功的으로 목장을 경영해 가는 우리의 酪農人들의 努力과 意志에 다시금 찬사를 보낸다.

스웨덴에서 한 신문기자와 인터뷰를 가졌었다. 그 記者는 한국을 세 번 다녀간 적이 있고 한국에 오래 머물면서 취재생활을 한 경험이 있는, 우리를 어느정도 아는 사람이었다. 酪農開

發 경험과 스웨덴에서 세계특허를 가진 테트라팩 기계에 대하여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그 記者가 한국에서는 왜 最近까지 酪農이 발전할 수 있는 機會가 없었느냐고 물었다. 自然氣候條件과 食生活構造등을 자세히 설명하기에는 時間的 여유도 없었고 인터뷰의 초점과도 거리가 있을 것 같아서 에피소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웃고 지났다. 한국에도 이조시대에 우유가 궁중에 진상하는 食品으로서 사용이 되었으나 한 임금대에(철종이라고 기억한다.) 이르러 송아지의 음식을 사람이 먹어 송아지의 사육과 농업에 지장이 있으니 인도적인 견지에서 이의 진상을 금지 시킨 이후 낙농이 발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였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생소하면서도 재미있게 들렸던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웃고 나중에 기사에 까지 그 이야기를 실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약간 다른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한 전제군주(monarch)가 우유를 사람의 음식이 아니고 송아지 음식이라는 이유로 진상을 금지하였다는 내용의 기사였는데 인도적인 견지라는 어휘가 빠진 것이다. 어쩌면 서구 사람들에게는 인도적인 이유에서 우유를 먹지 않는다면 마음속으로 저항감을 느낄지도 모를 일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우유란, 완전식품이요 “한 나라가 그 장래를 위하여 국민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투자는 어린이에게 우유를 먹여 두는 일이다”고 한 처칠 수상의 말이 반영하는 그들의 우유에 대한 신뢰와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짐승의 고기를 즐겨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유도 역시 창세기 시절에 사람이 다스리도록 창조되어 있는 인간의 전유물이 아니겠는가. 그럼에도 그들은 개와 고양이, 말의 고기는 먹지 않는다. 달팽이와 개구리 고기는 먹는다. 東洋

에서는 콩이 전통적인 단백질 공급식품이긴 하였지만 이의 보충원으로서인지는 모르나 개고양이·말 그리고 뱀까지도 식품으로 사용하여 왔다. 이들은 소·돼지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다스리도록 창조된 것이지만 우유는 좀 다른 질서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송아지가 먹고 살도록 섭리된 것이니까. 사람의 음식은 아니라는 철종의 사려깊은 조치에 고개가 수그러진다. 그러나 이제는 송아지의 음식을 먹는데 대한 죄책감은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수한 젖소들이 자기가 낳은 송아지를 충분히 먹이고도 남는 우유를 생산하여 우리의 2세를 위하여 제공하기 때문이다.

서양사람들은 해를 좋아하고 동양사람들은 달을 좋아 한다고 한다. 노래나 詩에도 우리에게 달을 읊은 것이 많은데 서양에는 “유 아 마이 션 샤인”, “오! 밝은 태양” 하고 해를 반긴다. 태양력이 서양의 캘린더이고 태음력이 동양의 달력이다. 내가 스웨덴에 도착한 날이 바로 우리의 節氣로는 하지였는데 그 곳에서는 큰 명절날로 축제가 있었다. Mid Summer Celebration Day 라고 하였다. 해가 가장 긴 날을 맞아 온 친척들이 한 데 모여 게임도 하고 노래와 춤을 추며 즐기는 것이었다. 그 날 나는 한 스웨덴인



가정의 초청을 받아 그들의 축제에 자리를 함께 하였다. 초청을 받아 간 장소는 해변의 큰 저택이었는데 나를 초청한 가족의 삼촌이 여름 별장으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모터 보트를 타고 반시간 정도 달려 도착하였는데 그들의 일가 친척들이 여러 곳에서, 어떤 가족은 보트를 타고 또 다른 패들은 자동차를 몰고 저택 앞 큰 잔디밭에 속속 모여 들고 있었다. 오십 명이 넘는 이들은 서로 안고 키스하며 오랜만에 만난 인사를 주고 받고는 아이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모두같이 잔디밭에서 원을 그리며 춤을 추고 편을 갈라 놀이를 하였다. 나에게도 함께 춤을 추자고 권하였지만 원래 춤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지라 구경하는 것이 더 좋다고 하고는 그들의 즐거운 모양들을 사진에 몇 장 담았다. 한참을 놀다가 집안에 준비된 차와 과자를 먹는 시간이 되자 삼삼오오 짝을 지어 한 접시씩 담은 음식을 들고 이곳 저곳에 한가로이 앉아 그간의 지나온 이야기들을 나누는 모습이 무척 밝고 재미나게 보였다. 이 날이 큰 명절이며 우리의 秋夕명절과 같은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와는 뉘지 다르다고 느꼈다. 동산에 올라 보름달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형제들이 열나홀날 밤에 둘러앉아 밤을 치며 술을 나누고 정겨운 이야기를 나누는 우리의 추석날 밤, 아이들은 동산에서 달불을 놓으며 즐거이 노는 우리의 축제와는 낮과 밤, 해와 달의 차이처럼 너무나 대조적으로 느껴졌다. 파리에서도 해를 즐기는 이들의 생활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위도가 북쪽인지라 밤 열시가 넘도록 낮처럼 흰한데 도시의 중심가 카페에는 人道에 까지 의자를 내어 놓고 사람들이 앉아 저무는 날이 아까운 듯 커피한잔 또는 와인 한병을 두고 담소를 나누는 것이었다. 피약벌이 싫어서 지겨운 태양이 되어

버린 우리의 여름은 어서 가을이 오기를 고대하는데, 이들은 도리어 햇벌이 내리 쪼이는 여름을 기다린다. 바캉스가 있기 때문에 여름을 좋아하는 것인가 여름이 좋기 때문에 여름에 바캉스를 내는 것일까.

서양사람들은 또 물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바캉스 시즌에는 요트와 서핑을 무척 좋아하고 女心은 해변과 호반에서 노출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山은 도전과 정복의 대상이며 물은 함께 즐기는 생활의 동반자이다.

물과 수세기를 싸워온 역사를 가진 네델란드인은 무엇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물을 좋아하는 그들이기에 治水에도 성공하였으리라고 짐작한다.

“智者樂水 仁者樂山”의 말을 빌어 西洋人이 仁者이기 보다는 智者라고 말한다면 너무 비약적인 論理일까?

그러나 불행히도 유럽에는 마실 물이 없다.

식당에서 물을 한 잔 시켜도 돈을 지불해야 한다. 모두병에 넣어서 파는 물이고 이것이 싫으면 맥주나 와인을 시켜 마셔야 한다.

유럽인들은 친절하고 서두르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 승강기 입구에서, 택시와 버스 정류장에서, 횡단보도 앞 신호등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앞을 다투는 일이 없이 서로 양보를 할 줄 알고 기다릴 줄을 아는 사람들이다. 한 가지 일을 하는데에도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어떻게 효과를 보자는 마음보다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바탕으로 서서히 일을 성취해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인사성이 자별한 사람들이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끼리 우연히 한적한 곳을 마주쳐 지나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리면서 얼굴이 마주 칠 때면 으레 고

개를 명랑하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굳 모닝”, “굳 이브닝”하고 인사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정신 이상자로 오해를 받기 쉬울테나 곤란하겠지만, 최소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경계의 시선을 보이는 것은 피해야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서양인에게 굳이 모르는 사람끼리의 인사에 대한 이유를 묻는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아는 사람일지라도 모르는 터에 인사를 하지 않는 실례보다는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해 두는 편이 낫다는 합리적인 대답을 들을 지도 모르니 따지지 않기로 하자. 그러나 나 자신 여행중에 서양인들의 친절에 많은 고마움을 느꼈고 예상하지 않았던 즐거운 일들을 겪었다. 네델란드와 덴마크에서는 호텔의 예약한 방에 들



어서니 탁자에 아름다운 꽃이 화병에 담겨있고 카드가 한 장 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만나기로 연락이 닿았던 회사에서 환영의 뜻을 전한 선물이었다. 이들이 우리의 출발과 도착을 확인하고 그리고 꽃을 이 탁자에 두기까지의 정성을 생각하면 그 날의 회의는 절로 화기애애한 분

위기로 진행될 것이 틀림없었다.

스웨덴에서는 친절한 B 씨 부부가 나의 체류 기간 동안 돌보아 주었는데 스톡홀름의 왕궁을 보고 싶다는 나의 제의에 응락하면서 자기 삼촌을 소개해 주었다.

그의 삼촌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 현스웨덴 국왕 구스타프 2세의 체육선생이기도 하였다. 그는 왕궁을 보고 싶다는 나의 요청에 잠시 생각을 하는듯 보였다. 휴일이라 일반에게 개방되는 왕궁의 일부가 문이 잠겨져 있어 들어가기가 거북한 모양이었다. 프랑스의 베르사이 유궁이나 루부르궁과 달리 이곳은 현직왕이 거거하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왕은 당시 별장에 가족과 함께 나가 있었고 우리는 B 씨 삼촌의 배려로 뜻밖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 그가 앞장 서서 인도하여 그 엄청난 규모의 궁내부를 상당 부분 돌아 볼수 있었던 것이다. 가운데에 천평뫼직한 광장을 둘러싸고 3층 석조건물이 사각형으로 에워져 지어진 이 왕궁은 일별하여 돌아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거대한 도서관, 연회장, 접견실, 회의실, 식당... 수 많은 방이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식당의 규모를 몇평쯤이라고 말하기 보다 한토막의 이야기로 상상을 하여 본다. 넓이보다 길이가 훨씬 긴 장방형 식탁에 왕과 신하가 둘러앉는다. 왕으로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서열순에 따라 신하들이 배석한다. 그리하여 왕의 오른쪽은 首席이 되고 왕의 왼쪽은 末席이 된다. 식사에법에 왕이 먼저 포크와 나이프(우리의 수저)를 들어야 오른쪽부터 순서대로 수저를 들어 식사를 시작하게 된다. 왕이 수저를 놓으면 식사는 끝이 난다. 어느때는 왕의 왼쪽에 앉은사람은 수저를 들었다가 음식을 채 먹어 보기도 전에 오른쪽에 앉은 왕의 수저가 내려가고 식

사는 끝이 난다. 다른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조때에 床물림이란 식사유형이 있었다고 한다. 堂上官이 먹고난 床이 堂下官에게 물려지고 다시 아전과 종에게 차례로 내려가는 물림 床이 있었는데, 물림을 배려하여 잘 먹지 못하여 수척해 진 堂上官에 대한 頌德대목이 기록에 자주있다고 하니 스웨덴에서는 왼쪽에 앉은 신하를 위하여 느리게 식사하는 왕의 頌德歌라도 있음직 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 보았다. 스웨덴 왕궁의 규모는 그렇다하고 축제일에 시골에서 나들이 나왔다가 문이 잠겨져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구경하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가 동양의 어느 Royal Family 라고 생각할 하였겠지만, 먼 바다를 건너 온 손님이라고 그토록 친절을 베풀어 준 B 씨 부부와 삼촌에게 고마운 마음 그지없다.

유럽을 떠나 귀국길에 미국을 잠시들러 서울로 돌아왔다. 갈 때와 반대방향인 태평양 위를 날아 왔으니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온 것이다. 총 비행시간 약 40시간을 지구의 自轉方向과 반대방향으로 날아서 다시 제자리에 왔으니 이는 로켓트를 타고 수직으로 올라가 대기권 밖에서 잠시 머물다가 다시 수직으로 내려 온 것과 다른 없는 지구의 한바퀴거리인 셈이다.

風物이 다르고 慣習이 다른 世界를 여행할 때에는 보고 듣는 것이 모두 새로워 예사로운 일이라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아 많은 감회가 엇갈리게 마련이다.

그중에서도 서구인들의 태양같이 밝은 성격, 친절한 마음씨등은 우리가 일상을 사는 데에 거울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토막지식〉

〈牛乳의 健康增進效果〉

1. 牛乳는 健康增進의 效果가 있는 營養素가 많다.
2. 牛乳는 消化吸収가 잘 된다.
3. 牛乳는 均衡된 營養을 供給한다.
4. 牛乳는 위의 健康을 增進한다.
5. 牛乳는 젖산 박테리아의 成長을 促進하여 健康을 增進한다.
6. 牛乳는 循環器, 疾病을 誘發하지 않는다.
7. 牛乳, 乳製品은 生産에서부터 消費까지 가장 衛生的으로 處理되고 加工 流通되는食品이다.
8. 牛乳 또는 乳飲料는 清涼飲料와 달라 清涼感和 함께 우리의 湯症을 씻어주고 完全히 均衡된 營養을 供給한다.
9. 牛乳는 糖尿病 患者에게 勸奨되는 食品이다.
10. 牛乳는 膽석 신장결석을 만들지 않는다.
11. 乳糖分解酵素의 결핍증은 問題가 되지 않는다.
12. 牛乳 アレルギー (Allergy)는 極小數의 사람에서만 볼수 있다.